

137.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

(4) 물세탁할 수 없는 마 와이셔츠

□ 물세탁할 수 없는 마 와이셔츠

- 드레스 셔츠 소매 일부와 깃 부분이 핑크로 변색되어 있음. 착용하고 나서 2번째 세탁으로 변색이 일어남.

해설)

- 마 제품은 일반적으로 반응염료, 직접염료, 배트염료 등으로 염색되지만, 염색 견뢰도가 낮아 얼룩이 발생되기 쉬운 것이 마 소재의 특징이기도 함.



- 해당 사고품의 경우는 소매, 옷깃 주위와 땀이나 피지 등의 분비물과 접촉되기 쉬운 부분에 발생되고 있는 것, 또 마소재의 높은 흡습성에 의한 성질로부터 땀 성분을 흡수해 남색계 염료의 분해에 의해서 퇴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(땀 견뢰도).
- 땀에 포함된 아미노산은 블랙라이트에 의한 조사(照射)에 의해서 형광을 발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찰로 부분적인 형광을 볼 수 있었음. 또, 염색 견뢰도에 대해서 백포(白布)로 습윤마찰을 한 경우 남색계통의 색이 이염되었음.

-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본 제품은 땀을 흡수한 상태로 착용에 의한 마찰을 받으면 이염이 발생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음(습마찰 견뢰도). 따라서 습마찰에 약하기 때문에 물세탁을 했을 때 다량의 염료가 용해되기 쉬워 드라이클리닝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, 이 경우에 땀 성분 등의 수용성 오염은 제거되지 않고 잔류하여 염료를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됨.
- 셔츠는 본래 내의 다음으로 피부접촉이 많아 흡한성이 높은 의류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본 제품과 같이 물세탁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는 치명적이라 할 수 있음.
- 건조한 기후의 나라에서 수입한 제품의 경우, 상품기획 단계에서 고온다습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수입의류인 경우 고온다습하고 땀이 나기 쉬운 기후환경에도 적합한지를 고려해야 함.

♠ 자료출처 : 송종욱 역, 세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류 사고사례 도감, 한국세탁업중앙회, 2011
www.textilecare.kr